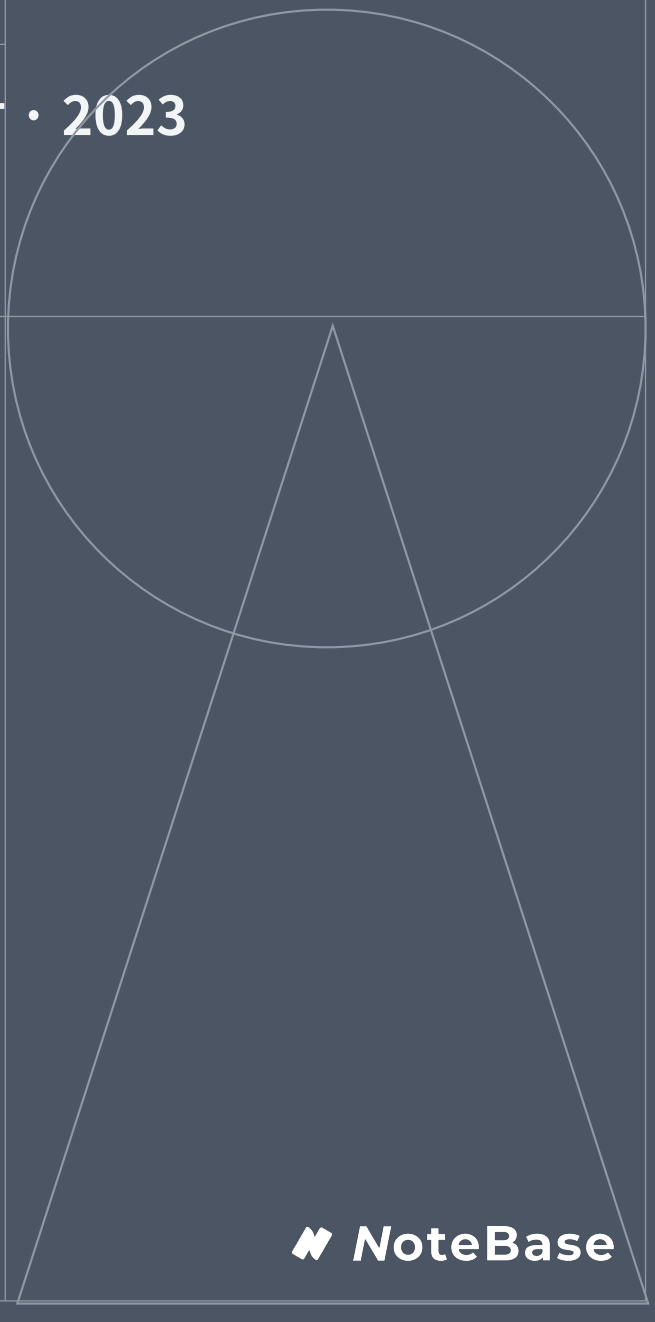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3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3

문 1.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현금 ₩10,000을 정기예금(연 이자율 10%, 1년 만기, 이자는 만기일시지급 조건)에 가입하고, 20×1년 말 결산 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말수정분개 누락이 20×1년 말 자산과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자산: ₩500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500 과소계상

② 자산: ₩500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500 과대계상

③ 자산: ₩1,000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1,000 과소계상

④ 자산: ₩1,000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1,000 과대계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만기에 이자를 받더라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6개월분 이자 500원은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00원 과소계상**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자 인식 기준: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을 받는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조건이어도 20×1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당기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자산인 미수수익으로 기록한다.

이자수익 계산: 원금은 10,000원, 연 이자율은 10%이며, 월할 계산하므로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의 적용 기간은 **6개월**이다. 연간 이자에 1년 중 경과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면 된다.
당기 이자수익은 $10{,}000 \times 10\% \times \frac{6}{12} = 500$원이다. 이는 20×1년에 예금을 운용하여 발생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은 이자이다.

필요한 기말수정분개: 차변에 미수수익 500원, 대변에 이자수익 500원을 기록한다. 이 분개로 **자산과 수익이 함께 증가**하며, 이자수익 500원은 당기순이익을 500원 증가시킨다.

누락의 영향: 수정분개를 하지 않으면 미수수익 500원이 자산에서 빠지고 이자수익 500원도 당기 수익에서 빠진다. 따라서 올바르게 기록한 경우보다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00원 과소계상되며, 이는 ①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의 다음 재무자료를 이용한 기말 부채는?

◯ 기초 자산 ₩2,000,000 ◯ 기초 부채 ₩500,000
◯ 당기순이익 ₩700,000 ◯ 기타포괄이익 ₩50,000
◯ 현금배당 ₩300,000 ◯ 유상증자 ₩1,250,000
◯ 기말 자산 ₩4,000,000

① ₩800,000
② ₩850,000
③ ₩3,150,000
④ ₩3,2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이익도 자본 증가에 포함하면 **기말 자본은 3,200,000원**이다. 기말 자산 4,000,000원에서 기말 자본을 차감한 기말 부채는 800,000원이다.

계산 과정

기초 자본: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이므로,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을 구할 수 있다.
2,000,000 − 500,000 = 1,500,000원

기말 자본: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은 모두 자본을 증가시키므로, 두 금액을 합한 총포괄이익은 700,000 + 50,000 = 750,000원이다. 유상증자는 주주의 출자로 자본을 증가시키고, **현금배당은 주주에 대한 분배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초 자본에 총포괄이익과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배당을 뺀다.
1,500,000 + 750,000 + 1,250,000 − 300,000 = 3,200,000원

기말 부채: 기말에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이므로, 기말 자산에서 기말 자본을 차감한다.
4,000,000 − 3,200,000 = 800,000원

기말 부채 800,000원은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액면이자율 연 12%,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3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 시부터 만기까지 인식한 총이자비용은 ₩310,263이다. 20×1년 초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 (단,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① ₩1,049,737

② ₩1,310,163

③ ₩1,360,000

④ ₩1,670,263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발행부터 만기까지의 총이자비용은 총액면이자에서 **사채할증발행차금**을 뺀 금액이다. 총액면이자 360,000원과 총이자비용 310,263원의 차이 49,737원이 할증발행액이므로, 발행가액은 1,049,737원이다.

계산 과정

1. 총액면이자: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하여** 구한다. 연간 지급액은 1,000,000원 × 12% = 120,000원이고, 만기까지 3년간 지급하는 액면이자는 120,000원 × 3년 = 360,000원이다.

2. 할증발행액: 액면이자율 12%가 유효이자율 10%보다 높으므로 액면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된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인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만기까지 상각되며, 각 기간의 이자비용은 액면이자 지급액에서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전체 기간의 **총액면이자와 총이자비용의 차이**가 최초 할증발행액이다. 그 금액은 360,000원 − 310,263원 = 49,737원이다.

3. 발행가액: 만기에 상환할 액면금액에 최초 할증발행액을 더한다. 발행가액은 1,000,000원 + 49,737원 = 1,049,737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1월 초 A사 지분상품을 ₩10,000에 매입하면서 매입수수료 ₩5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12월 말 A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8,000이라면, 20×1년 말 (주)한국이 인식할 A사 지분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① 금융자산평가손실(당기손익) ₩2,000

② 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2,000

③ 금융자산평가손실(당기손익) ₩2,500

④ 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2,5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매입수수료를 취득금액에 포함**하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10,500원이다. 기말 공정가치 8,000원과의 차액 2,500원은 **기타포괄손익의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최초 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따라서 20×1년 1월 초 지급한 매입수수료 500원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분상품의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장부금액은 10,000 + 500 = 10,500원이다.

2. 평가손익 계산: 20×1년 12월 말에는 장부금액을 기말 공정가치 8,000원으로 조정한다. 평가손익은 8,000 − 10,500 = −2,500원이다. 음수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한다는 뜻이므로 평가손실은 2,500원이다. 매입대금 10,000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0원은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된 수수료 5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3. 손익의 인식: 이 지분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으므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말에 인식할 금액은 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2,500원이며,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②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존 대출계약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차환·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재량권도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에는 당초 만기가 12개월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동·비유동 구분이 원칙이지만, 유동성 순서가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적용한다. 이때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로 표시한다.

② O: 금융회사처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가 없는 기업에서는 회수·결제의 유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나열하는 오름차순**과 **높은 항목부터 나열하는 내림차순** 모두 가능하다.

③ O: 영업주기는 가공을 위한 자산 취득부터 현금 회수까지의 기간이다. 영업주기가 명확하면 **유동·비유동 구분**을 통해 영업활동에서 계속 순환하는 자산·부채와 장기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항목을 구별할 수 있다.

④ X: 당초 만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여도, 기존 대출계약에 따라 적어도 12개월 이상 차환·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 말에 이미 상환을 미룰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차환·연장을 기대하더라도 기업에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6.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는 (주)한국은 공손품의 검사를 공정의 50% 시점에서 수행하며, 검사시점을 통과한 수량의 10%를 정상공손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생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기초재공품 8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80%)
◯ 당기착수량 4,200단위
◯ 당기완성량 3,500단위
◯ 기말재공품 1,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60%)

① 정상공손수량: 35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150단위
② 정상공손수량: 37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130단위
③ 정상공손수량: 42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80단위
④ 정상공손수량: 45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50단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80%로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당기 검사통과수량에서 제외한다.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60%로 검사시점 50%를 지났으므로 포함하여, **당기 검사통과수량 3,700단위**의 10%인 370단위를 정상공손으로 본다. 총공손 500단위 중 이를 초과한 130단위가 비정상공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총공손수량: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량을 합한 수량에서 당기완성량과 기말재공품을 빼면 공손으로 감소한 수량이 나온다. 총공손수량은 800 + 4,200 − 3,500 − 1,000 = 500단위이다.

당기 검사통과수량: 가공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가공원가 완성도를 검사시점 50%와 비교한다. 기말재공품 1,000단위는 완성도 60%이므로 검사를 통과한 수량에 포함한다. 반면 기초재공품 800단위는 완성도 80%로 **전기에 이미 검사시점을 통과**했으므로 당기에 새로 통과한 수량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당기 검사통과수량은 3,500 + 1,000 − 800 = 3,700단위이다. 이는 가공원가 완성도를 곱한 환산량이 아니라 실제로 검사를 통과한 양품수량이다.

정상공손수량: 문제에서 허용한 정상공손은 **당기 검사통과수량의 10%**이다. 따라서 정상공손수량은 3,700 × 10% = 370단위이다.

비정상공손수량: 실제 공손 중 정상적으로 허용하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수량은 500 − 370 = 130단위이다.

정상공손수량 370단위와 비정상공손수량 130단위의 연결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② 특정순자산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3번

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세 범주**로 분류한다. 장기충당부채를 별도 범주로 구분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처럼 **사용목적이 특정된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이다.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관련 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은 **고정순자산**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NoteBase

③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이며,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환거래의 비용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가치 이전의 의무가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것은 **비교환거래의 비용**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개정 2021.1.7>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NoteBase

문 8.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한국은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여 당해 연도에 제품 2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주)한국의 20×1년도 공헌이익률이 40%, 영업레버리지도가 5일 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① 100단위

② 120단위

③ 140단위

④ 160단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므로, 공헌이익 80,000원 중 영업이익은 16,000원이고 고정원가는 64,000원이다.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 400원으로 회수**하는 데 필요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60단위이다.

계산 과정

1. 공헌이익 계산: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며,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중 공헌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출액은 200단위 × 1,000원 = 200,000원이므로 총공헌이익은 200,000원 × 40% = 80,00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원 × 40% = 400원이다.

2. 영업이익 계산: 영업레버리지도는 현재 판매량에서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영업레버리지도=공헌이익영업이익이므로, 영업이익은 $\frac{80,000}{5} = 16,000$원이다.

3. 고정원가 계산: 공헌이익은 먼저 고정원가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영업이익이 된다. 따라서 **고정원가는 공헌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인 80,000원 − 16,000원 = 64,000원이다.

4. 손익분기점 판매량 계산: 판매단가와 단위당 변동원가 및 총고정원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손익분기점은 **총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같아져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이다. 제품 한 단위를 팔 때마다 400원씩 고정원가를 충당하므로, 필요한 판매량은 64,000원400원/단위=160단위이다. 이는 ④의 160단위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10월 초 기계장치를 ₩1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 연수합계법, 월할 상각)에 취득한 후, 20×2년 1월 초 ₩30,000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 그 결과 20×2년 1월 초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되었다. (주)한국이 20×2년 1월 초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면,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 ₩7,200

② ₩10,200

③ ₩12,200

④ ₩37,2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122,000원에서 새 잔존가치 50,000원을 차감하고, 이를 **변경 시점의 잔여내용연수 10년**에 걸쳐 정액 상각한다. 이에 따라 20×2년 감가상각비는 7,2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변경의 적용 시점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한다. 따라서 20×1년 감가상각비는 당시의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하고, 20×2년부터 변경된 장부금액·잔존가치·내용연수를 사용하여 정액법을 적용한다.

2. 20×1년 감가상각비
최초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0 − 20,000 = 8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해당 연차의 잔여내용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최초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고, 첫해 적용 비율은 4/10이다. 10월 초 취득하여 12월 말까지 사용했으므로 **3개월분만 월할 상각**한다.
감가상각비는 $80{,}000 \cdot \frac{4}{10} \cdot \frac{3}{12} = 8{,}000$원이다.

3. 자본적 지출 후 장부금액
20×2년 초 자본적 지출 전 장부금액은 100,000 − 8,000 = 92,000원이다. 자본적 지출 30,000원은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가산**하므로, 지출 후 장부금액은 92,000 + 30,000 = 122,000원이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도 없으므로 별도의 재평가나 손상 조정은 없다.

4. 20×2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앞으로 상각할 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지출 후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뺀 122,000 − 50,000 = 72,000원이 앞으로 상각할 금액이다. 20×2년 초에 새로 추정한 10년은 **그 시점부터의 잔여내용연수**이므로, 이미 사용한 3개월을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변경이 연초에 이루어졌으므로 20×2년에는 1년분을 상각한다.
감가상각비는 $\frac{72{,}000}{10} = 7{,}2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보통주를 직전 회계기간의 기말종가 기준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②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③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더라도, 비교표시하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④ 중단영업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유자가 보통주와 현금 중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을 가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보통주가 기존 보통주 1주당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손실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맞지만, 예상 현금유입액에 적용하는 가격은 직전 회계기간의 기말종가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이다.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에서 그 현금유입액으로 평균시장가격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를 뺀 나머지를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으로 보아 희석효과를 반영한다.

② O: **보유자에게 결제 선택권**이 있으면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을 사용한다. 희석효과란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이나 행사 등을 가정할 때 주당이익이 감소하거나 주당손실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보유자 선택 계약에서는 두 결제방법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③ X: 자본금전입·무상증자·주식분할·주식병합으로 주식수가 변하면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간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기업의 자원에 상응하는 변동 없이 주식수만 바뀌므로, 과거 수치도 같은 주식수 기준으로 맞추어야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다.

④ X: 중단영업을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영업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표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두 곳 모두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1. 20×1년 5월 말 (주)한국의 수정 전 당좌예금 장부잔액과 거래은행 측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수정 전 당좌예금 장부잔액이 ₩160,000일 때, 거래은행 측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은?

(주)한국이 거래은행에 입금처리한 수표 ₩30,000이 5월 19일에 부도처리되었으나, (주)한국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거래처인 (주)서울이 상품구입대금 ₩20,000을 (주)한국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거래은행은 (주)한국의 20×1년 5월분 수수료 ₩40,000을 (주)한국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다.
(주)한국이 기발행한 수표 ₩10,000이 아직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주)한국은 현금 ₩20,000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거래은행에서는 아직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

① ₩70,000
② ₩100,000
③ ₩160,000
④ ₩18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회사 장부와 은행 기록을 각각 조정하면 같은 잔액이 된다. 회사 측 수정 후 잔액은 110,000원이며, 여기서 **미제시수표는 더하고 미기입예금은 빼서** 역산한 은행 측 수정 전 잔액은 1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은행계정조정은 회사 장부와 은행 기록의 차이를 조정하여 같은 시점의 당좌예금잔액을 맞추는 과정이다. 먼저 회사 측 수정 후 잔액을 구한 다음, 은행 측 조정항목을 거꾸로 적용하여 은행 측 수정 전 잔액을 구한다.

부도수표 30,000원: 은행은 이미 부도처리를 했지만 회사는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회사 장부에 남아 있는 입금액을 취소해야 하므로 **회사 장부잔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처 입금액 20,000원: 거래처가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은행에는 반영되었으나 회사는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 장부잔액에 가산한다.

은행수수료 40,000원: 은행이 이미 계좌에서 차감했지만 회사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 장부잔액에서 차감한다.

회사 측 수정 후 잔액: 160,000 − 30,000 + 20,000 − 40,000 = 110,000원이다. 이 금액은 **은행 측 잔액도 조정한 뒤 일치해야 할 금액**이다.

미제시수표 10,000원: 회사는 수표 발행 시 이미 당좌예금을 줄였지만 은행은 아직 지급하지 않아 잔액을 줄이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 측 수정 전 잔액에서 1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미기입예금 20,000원: 회사는 현금 입금을 기록했지만 은행은 아직 입금처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 측 수정 전 잔액에 20,000원을 가산해야 한다.

은행 측 수정 전 잔액: 은행 잔액에서 미제시수표를 빼고 미기입예금을 더한 결과가 110,000원이므로, **수정 전 잔액을 구할 때는 조정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다. 110,000 + 10,000 − 20,000 = 10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산정을 위한 기준조업도는 10,000기계시간,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기계시간당 ₩50이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가 12,000기계시간이고,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660,000일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와 예산차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조업도차이: ₩50,000 유리한 차이, 예산차이: ₩110,000 불리한 차이

② 조업도차이: ₩50,000 불리한 차이, 예산차이: ₩110,000 유리한 차이

③ 조업도차이: ₩100,000 유리한 차이, 예산차이: ₩160,000 불리한 차이

④ 조업도차이: ₩100,000 불리한 차이, 예산차이: ₩160,000 유리한 차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예산액 500,000원보다 배부액 600,000원이 커 조업도차이는 **100,000원 유리**하다. 실제 발생액 660,000원이 예산액을 초과하므로 예산차이는 **160,000원 불리**하다.

계산 과정

1.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 표준배부율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기준조업도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예산액은 10,000기계시간 × 50원/기계시간 = 500,000원이다. 고정원가이므로 실제 산출량이 늘었다고 예산액을 비례하여 늘리지 않는다.

2.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제품에 배부하는 금액은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에 표준배부율을 곱해 구한다. 배부액은 12,000기계시간 × 50원/기계시간 = 600,000원이다. 이는 실제 발생액이 아니라 실제 생산한 제품에 표준원가로 배부한 금액이다.

3. 조업도차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액과 배부액**을 비교한다. 배부액이 예산액보다 6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크므로 100,000원 유리한 차이이다. 기준조업도보다 큰 표준조업도에 원가를 배부하여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부된 데서 생긴 차이이다.

4. 예산차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과 예산액**을 비교한다. 실제 발생액이 예산액보다 660,000원 − 500,000원 = 160,000원 크므로 160,000원 불리한 차이이다. 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당초 예산을 초과한 금액이다.

조업도차이 100,000원 유리한 차이, 예산차이 160,000원 불리한 차이로, ③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매입액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원가성 있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기초 재고자산 ₩50,000
기말 장부상 재고자산 수량 110단위
기말 실제 재고자산 수량 100단위
기말 장부상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1,000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50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651,000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는 원가성 없음

① ₩689,000
② ₩694,000
③ ₩700,000
④ ₩702,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에서 **원가성 있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제외한 금액**은 640,000원이다. 이 금액에 기말 장부상 재고액을 더하고 기초 재고액을 빼면 매입액은 7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재고자산감모손실: 장부상 수량 110단위와 실제 수량 100단위의 차이인 10단위가 감모수량이다. 감모손실은 10 × 1,000 = 10,000원이다. 이 중 원가성 없는 부분은 10,000 × 40% = 4,000원이고,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성 있는 부분**은 10,000 − 4,000 = 6,000원이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50원이 원가 1,000원보다 낮으므로 단위당 50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평가는 **실제로 남아 있는 100단위**에 적용하므로 평가손실은 100 × (1,000 − 950) = 5,000원이다. 이 손실도 문제의 조건에 따라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3. 감모·평가 조정 전 매출원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651,000원에는 원가성 있는 감모손실 6,000원과 평가손실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두 손실을 제외한 매출원가는 651,000 − 6,000 − 5,000 = 640,000원이다. 원가성 없는 감모손실 4,000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다시 빼지 않는다.

4. 재고자산 매입액: 감모·평가 조정 전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에 매입액을 더한 뒤 **감모·평가 조정 전의 기말 장부상 재고액**을 뺀 금액이다. 기말 장부상 재고액은 110 × 1,000 = 110,000원이므로, 매입액은 640,000 + 110,000 − 50,000 = 700,000원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20×1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30,000이다.
◯ 20×1년 중 매출채권 ₩6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추정한 기대신용손실액은 ₩20,000이다.

① ₩20,000
② ₩30,000
③ ₩50,000
④ ₩6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회수불능액 60,000원 중 기존 손실충당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30,000원과, 기말에 남겨 두어야 할 손실충당금 20,000원을 합쳐 **손상차손 50,0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미리 반영한 금액이다.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해당 매출채권을 제거하면서 이미 설정한 손실충당금을 사용하고, 기말에는 남아 있는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액만큼 충당금을 갖추어야 한다.

회수불능 확정액 반영: 20×1년 초 손실충당금은 30,000원이지만, 당기 회수불능 확정액은 60,000원이다. 기존 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60,000 − 30,000 = 30,000원은 **추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 부족액**이다.

기말 필요 충당금 반영: 20×1년 말 남아 있는 매출채권 500,000원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은 20,000원이다. 회수불능 확정액을 처리하는 데 기존 충당금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기말 손실충당금 20,000원을 남기기 위해 손상차손을 20,000원 더 인식한다. 이 20,000원은 **당기 손상차손 총액이 아니라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잔액**이다.

당기 손상차손 합계: 30,000 + 20,000 = 50,000원이다. 이는 ③의 5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차입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본다.

②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활동을 포함하나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④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적격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는 **물리적 제작 이전의 기술·관리 활동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종료한다. 물리적 건설이 완성되고 **일상적인 후속 관리업무만 남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판매 가능한 상태로 보므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자본화를 계속하지 않는다.

② X: 필요한 활동에는 물리적인 제작뿐 아니라 **제작 이전의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착공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활동도 자산을 사용·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는다'를 '포함한다'로 고쳐야 한다. 다만 자본화를 개시하려면 이러한 활동의 수행과 함께 자산에 대한 지출 및 차입원가의 발생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O: 완성된 부분을 **나머지 부분의 완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분별로 자본화 종료 시점을 판단한다. 해당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그 부분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반대로 전체 공정이 완성되어야 어느 부분이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에는 이러한 부분별 종료를 적용할 수 없다.

④ O: 자본화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적격자산 지출액에는 현금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에 따른 지출이 포함된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과 공사 진행에 따라 수취한 금액은 자산 취득·건설을 위해 조달해야 할 자금을 줄이므로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16. 20×1년에 영업을 시작한 (주)한국의 당해 연도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 생산수량 5,000단위
◯ 판매수량 4,000단위
◯ 단위당 판매가격 ₩2,000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5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3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350,000
◯ 총고정판매관리비 ₩150,000

① ₩1,620,000
② ₩1,900,000
③ ₩1,970,000
④ ₩2,5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판매분의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 전액**을 뺀다. 공헌이익 2,400,000원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 합계 50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9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변동원가계산은 제품원가에 변동제조원가만 포함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판매한 제품의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매출액에서 차감해 공헌이익을 구한 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 전액을 차감한다.

단위당 변동원가: 직접재료원가 500원, 직접노무원가 4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300원을 합하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200원이다. 여기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0원을 더하면 판매 1단위에 대응하는 변동원가는 1,400원이다.

공헌이익: 단위당 판매가격 2,000원에서 변동원가 1,400원을 빼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600원이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데 기여한다. 여기에 **생산수량이 아닌 판매수량 4,000단위**를 곱하므로 총공헌이익은 600원 × 4,000단위 = 2,400,000원이다. 생산수량 5,000단위 중 판매되지 않은 1,000단위의 변동제조원가는 기말재고에 남는다.

영업이익: 총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350,000원 + 고정판매관리비 150,000원 = 500,00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재고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 차감하므로 영업이익은 2,400,000원 − 500,000원 = 1,90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②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회계추정의 변경효과가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한 기간에는 회계추정 변경 효과를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하고, 미래기간에는 회계추정 변경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④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회계추정 변경효과가 당기와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면, 각 기간에 해당하는 효과를 **각 기간의 당기손익**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미래기간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추정치는 측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판단이나 가정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이다. 새로운 정보에 따라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바꾸는 것은 추정치를 갱신하는 것이므로,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과거에 이용할 수 있었던 신뢰성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을 바로잡는 경우에는 오류수정으로 구분한다.

② O: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려고 오류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오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③ X: 회계추정 변경효과가 당기와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면, 당기에 해당하는 효과는 당기의 당기손익에, 미래기간에 해당하는 효과는 **그 미래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전진적 인식은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변경일부터 새 추정치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을 바꾸면 당기와 남은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반영하며, 미래 감가상각비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옮기지 않는다. 다만 변경효과가 자산·부채의 변동을 일으키거나 자본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변경기간에 관련 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④ O: 당기 중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아직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당기 재무제표에서 바로잡는다. 중요한 전기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정보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보다 앞서 발생했다면 그 가장 이른 기간의 자산·부채·자본 기초잔액을 재작성한다. 다만 기간별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범위에는 소급재작성의 예외가 적용된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20×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20×1년 지방자치단체 A의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는?

◯ 사업총원가 ₩200,000 ◯ 일반수익 ₩40,000
◯ 비배분수익 ₩20,000 ◯ 비배분비용 ₩30,000
◯ 관리운영비 ₩50,000 ◯ 사업수익 ₩70,000

① ₩130,000
② ₩150,000
③ ₩160,000
④ ₩19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업수익과 비배분수익까지 반영한 재정운영순원가 190,000원에서 일반수익 40,000원을 빼면 150,000원이다.

계산 과정

사업순원가: 사업 수행에 든 사업총원가에서 **해당 사업의 수익을 차감**한다. 따라서 사업순원가는 200,000 − 70,000 = 130,000원이다. 이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고 남은 사업의 순원가이다.

재정운영순원가: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뺀다. 사업 외의 비용과 수익까지 반영하므로 130,000 + 50,000 + 30,000 − 20,000 = 190,000원이다. 이 금액은 **일반수익을 차감하기 전**의 순원가이다.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하므로 190,000 − 40,000 = 150,000원이다.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이 양수이므로, 전체 비용이 전체 수익보다 150,000원 많다는 뜻이다. 계산된 150,000원은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각각 150%와 120%일 때, 재고자산(A)과 장기차입금(B)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현금	₩ 2,000	매입채무	₩ 1,000
매출채권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A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	₩ 16,000	장기차입금	B
유형자산	₩ 8,000	부채총계	
투자부동산	₩ 2,000	자본금	₩ 5,000
무형자산	₩ 6,000	이익잉여금	₩ 8,000
		자본총계	₩ 13,000
자산총계	₩ 28,000	부채 및 자본 총계	₩ 28,000

① A: ₩ 2,400, B: ₩ 7,000

② A: ₩ 2,400, B: ₩ 8,000

③ A: ₩ 7,600, B: ₩ 7,000

④ A: ₩ 7,600, B: ₩ 8,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차이는 이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이 유동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유동부채 8,000원에 두 비율의 차이 30%를 적용하면 재고자산은 2,400원이며, 총부채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장기차입금은 7,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동자산: 자산총계 28,000원에서 비유동자산 16,000원을 뺀다. 따라서 유동자산은 28,000 − 16,000 = 12,000원이다. 유형자산·투자부동산·무형자산은 이미 비유동자산 16,000원에 포함되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2.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므로, 150%를 배수 1.5로 바꾸면 유동부채=12,0001.5=8,000원이다. 이 금액은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을 합한 값이다.

3. 재고자산(A): 제시된 유동자산은 현금·매출채권·재고자산으로 구성되므로,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유동부채×100이므로 당좌자산은 8,000 × 1.2 = 9,600원이다. 따라서 재고자산 A는 12,000 − 9,600 = 2,400원이다.

4. 장기차입금(B): **자산 = 부채 + 자본**이므로 부채총계는 28,000 − 13,000 = 15,000원이다.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뿐이므로, 유동부채 8,000원을 차감하면 B는 15,000 − 8,000 = 7,000원이다.

A = 2,400원, B = 7,000원으로, ①의 금액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 제조간접원가 예산 ₩150,000
◯ 예상 기계가동시간 3,000시간
◯ 실제 기계가동시간 3,2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5,000 과소배부

① ₩155,000
② ₩165,000
③ ₩170,000
④ ₩17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예정배부액 160,000원보다 실제 발생액이 5,000원 큰 것이 **과소배부**이다. 따라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60,000 + 5,000 = 165,000원이다.

계산 과정

예정배부율: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예상 배부기준량으로 나누어 배부율을 정한다. 기계가동시간이 배부기준이므로, 예정배부율은 $\frac{150,000}{3,000} = 50$원/시간이다. 이는 기계가동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원가 50원을 배부한다는 뜻이다.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에 **실제 기계가동시간**을 곱한다. 따라서 예정배부액은 50원/시간 × 3,200시간 = 160,000원이다. 이 금액은 실제 발생액이 아니라, 실제 가동시간에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제품에 배부한 금액이다.

실제 발생액: 5,000원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보다 5,000원 적게 배부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에 과소배부액을 더한 160,000 + 5,000 = 165,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